

## 그리스도는 신이다?

이에쭈쭈는 신이다.

슬픔, 괴로움, 온갖 어려움, 오도록 하라!

그 분의 영광이 들어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

천년고통의 세월이 이어져도

그동안은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로 전향할 때에 고백했던 시편중의 하나다.

이러한 고백에 못지않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반문하는 소리도 상당히 많이 들을 수 있다.

동유럽이나, 서아시아, 이집트 교인들은 그리스어에는 Θεοτόκος 페오토코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하느님의 아들의 어머니”를 뜻한다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Θεοτόκος 페오토코쓰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Dei Genetrix or Deipara “하느님의 부모(여성형)”을 뜻한다. 그래서 Θεοτόκος 페오토코쓰를 “하느님의 어머니”라 옮긴다. 그분은(그리스도) 하느님이시다, 메리한테서 태어나신 God, 하느님이시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이러한 표현을 로마교회나, 그리스어 교회에서는 당혹감을 느끼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재료로 사용해 왔다.

반면에,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균형있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짚어가면서’ 믿는 사람들은 Θεοτόκος 떼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는 신이다”는 표현을 부적절하고 적합하지 못한 표현으로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을 피해왔다. 영국교회에서는 공식적인 신학문헌이나 심지어 기도문에 서도 “그리스도는 신이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니케아 신조에서 그 근본을 찾아볼 수 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확인하는 구절 중에서,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begotten Son of God, begotten of his Father before all worlds, God of God.” 찾아볼 수 있다. Jesus is God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요.

최근에는 WCC,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Article 1 of the Basis, set forth in 1961):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is a fellowship of Churches which confess the Lord Jesus Christ as God and Saviour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erefore seek to fulfil together their common calling to the glory of one God, Father, Son, and Holy Spirit."

이런 영어 문장을 읽으시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잘못된 점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모두 옳다고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말씀 좀 하시라

고 영문 그대로 옮겼습니다.

Dr. Nels Ferre에 의하면, 이단heresy은 천신예수를 가르치는 데 있다고 했다. 예수는 하늘의 몸을 가졌다는 2세기 이론인데 docetism이라 칭합니다. WCC의 신앙고백에 대해서 Dr. Nels Ferre가 지적하는 바는 바로 the Lord Jesus Christ as God에 있다. the Lord Jesus Christ as God라는 표현은, 마치 구약의 하느님, 세상을 창조했던 하느님, 하느님의 모두 전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것으로 믿도록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단에 속하는 표현으로 본 것이다. the Lord Jesus Christ as God란 표현은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고 본 것이다.

예수는 하느님이 아니다 Jesus is not God, 하느님의 아들이다 but the Son of God. 예수는 육체를 입은 신이지 Jesus is God incarnate, not God in himself. 예수님 속에 임재하시는 신이 아니다. 나를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하느님과 동등시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속에 임재하시는 신을 예수님과 동등시할 수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던 그 예수 안에 계셨던, 영원한 하느님을 예배합니다.

WCC가 “confess the Lord Jesus Christ as God and Saviour 주 예수 그리스

도는 하나님이며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게되는 점이 큰 문제이다. the World Council would have done better to choose the words. WCC는 보다 더 좋은 문장을 선택하는 일을 잘 해냈어야 한다.

주후 451년에 칼케돈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God himself has become incarnate, clothing and veiling himself in humanity.” 인간 사회에 자신을 베일에 감추인체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선언문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극단적인 천신 예수설이지요. 즉, 예수에게는 한가지 질quality, 오직 신적인 존재만 있었다 monophitism고 가르친 잘못된 이론이었다.

WCC가 “confess the Lord Jesus Christ as God and Saviour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구세주이심을 고백합니다“는 성명문에는 이단에 속했던 내용물이 들어 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약이나 기독교서를 읽으면서 바른 가르침을 찾아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본다.

신약에 사도행전 7:59을 읽어 보자!.

*καὶ ἐλιθοβόλουν τὸν Στέφανον ἐπικαλούμενον καὶ λέγοντα· κύριε Ἰησοῦ, δέξαι τὸ πνεῦμά μου.*

그가 호소하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계

속해서 돌들로 쳤다. (행전7:59) 순교자 스테판은 운명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불렀다는 점을 이 구절에서 읽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분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했다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하고 의아심을 던질 것이다. 행전20:28을 읽어보자.

ποιμαίνειν τὴν ἐκκλησίαν τοῦ θεοῦ, ἣν περιεποιήσατο διὰ τοῦ αἵματος τοῦ ἰδίου.

그분께서 그 자신의 피로서 취득했던 하느님의 교회를 지키도록 (행전20:28)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Acts 20:28 NIV)

to feed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the blood of his own Son**. (Acts 20:28 NJB)

to shepherd God's Messianic community, which he won for himself **at the cost of his own Son's blood**.(Acts 20:28 CJB)

이 구절에서 논쟁이 되는 단어는 **τοῦ ἰδίου**. 투 이디우다.

**τοῦ ἰδίου**. 투 이디우를 2가지 방법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τοῦ ἰδίου**. = **with his own blood** 하느님 자신의 피로,

**τοῦ ἰδίου**. = **with the blood of his own Son**. 하느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

**τοῦ ἰδίου**. 투 이디우가 하느님 자신의 피냐? 하느님 자신의 아들의 피냐?

이 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법적인 방편으로 해결하는 길 밖에는 없다.

*τοῦ ἰδίου*. "his own"은 소유형용사라기 보다는 "his own One"을 뜻하는 명사로 풀이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τοῦ ἰδίου*가 속격이기 때문에 "...의"를 첨가해서 "of his own One"이라 옮겼다.

그런데, 문법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하느님 자신의 피로'라고 번역을 하고 보니, 이 번역문은 기독교론, 즉, 십자가에서 사실상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상의 죽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스도 이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느님이란 분이 또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는 신학적인 방편을 사용해서, '아들 Son'이란 단어를 첨가했다. 그 결과 *τοῦ ἰδίου*를 *with the blood of his own Son*. 하느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라 옮긴 것이다.

그러면 *τοῦ ἰδίου*를 *with the blood of his own Son*. 하느님 자신의 아들의 피로.라 옮긴 것이, 이 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선생의 의중에 있었던가? 이 구절을 기록할 때의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에는 들어있지 않았던 표현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9:5을 읽어보면 유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ὧν οἱ πατέρες καὶ ἐ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ὁ ὧν ἐπὶ πάντων θεὸς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ἀμήν.

조상들은 그들의 것이고 그들로부터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소서, 아멘! (로마서 9:5)

ὁ ὢν는 앞에 나온 ὁ Χριστὸς를 가리킨다.

the Patriarchs are theirs; and from them, as far as his physical descent is concerned, came the Messiah, who is over all. Praised be **ADONAI** for ever! Amen.(Rom. 9:5 CJB)

CJB 번역을 보면,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부분은 그리스도에게

할당을 하면서,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소서’는 그리

스도가 아닌 θεὸς (**ADONAI**,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이름)에게 할당을 했다.

선행사 ὁ로부터 분리시켜서 θεὸς에게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를 할당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합당치 않다. 그냥 문장이 흐르는데로 번역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소서,”라는 번역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CJB 유대인 번역문은 그리스도에게

하느님이란 칭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선행사 ὁ로부터 분리시켜서, θεὸς에게 εὐ

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소서를 할당한 점을 알아낼 수

있다. 유대인은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도 유일신 하

느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느님이란 칭호를 주지 않은 점을 읽어

볼 수 있다.

theirs the patriarchs, and from them, according to the flesh, is the Messiah. God who is over all be blessed forever. Amen.(Rom. 9:5 NAB)

NAB는 천주교에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the Messiah.에서 문장이 끝나지요. 새로운 주어로 God가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NAB 역시 이 구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신성, θεός 하느님이란 칭호를 할당하지 않았습니다.

Theirs are the patriarchs, and from them is traced the human ancestry of the Messiah, who is God over all, forever praised! Amen.(Rom. 9:5 NIV)

The ancestors are theirs, and from them, by physical descent, came the Christ, who is God over all, praised forever. Amen. (Rom. 9:5 CSB17)

이 구절과 유사한 구절을 고후 11:3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ὁ θεός καὶ πατὴρ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οἶδεν, ὁ ὢν εὐλογητὸς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ὅτι οὐ ψεύδομαι. (2 Cor. 11:31 BGT)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실 하느님 그리고 주 이에쑤쓰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아신다. (고후11:31)

현재분사 ὢν과 형용사 εὐλογητὸς가 나오는 관대절 ὁ ὢν εὐλογητὸς에서 정관사 ὁ는 앞에 나온 주어인 ὁ θεός를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로마서 9:5)과 비교해 보자.

ἐ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θεὸς εὐλογητὸς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분사 ὢν과 형용사 εὐλογητὸς가 나오는 관대절



ὁ ὢν ... εὐλογητὸς에서 정관사 ὁ는 앞에 나온 주어인 ὁ Χριστὸς를 가리킨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로마서 9:5절을 옮기면,

ἐξ ὧν ὁ Χριστὸς τὸ κατὰ σάρκα, 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θεὸς εὐλογητὸς

그들로부터(ἐξ ὧν) 육체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τὸ κατὰ σάρκα), 모든 것 위에

계시는(ὁ ὢν ἐπὶ πάντων) 그리스도(ὁ Χριστὸς), 하느님이시여(θεὸς) 축복을 받으

소서(εὐλογητὸς)!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여!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느님이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이렇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느님으로 기록했습니다.

.....

또 다른 구절, 히브리서 1:8을 읽어 보자,

πρὸς δὲ τὸν υἱόν· ὁ θρόνος σου ὁ θεὸς εἰς τὸν αἰῶνα τοῦ αἰῶνος, καὶ ἡ ῥάβδος

τῆς εὐθύτητος ῥάβδος τῆς βασιλείας σου.

그러나 그의 아들에게는,

당신의 왕좌, 오 신이시여! 영원 무궁 무궁토록!

공의의 홀, 그의 왕국의 홀! (히브리서 1:8)

히브리서 1:8에서는 아들에게 하느님이란 칭호를 기쁘게 할당했다.

만에 하나라도, ὁ θρόνος σου ὁ θεὸς를 “하느님은 당신의 왕좌!”

이렇게 옮긴다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킬 뿐만아니라, 그 내용이

신을 괴상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에 저촉된다고 본다.

.....

상당히 논란이 되는 구절 디도서 2:13을 읽어보자.

*προσδεχόμενοι τὴν μακαρίαν ἐλπίδα καὶ ἐπιφάνειαν τῆς δόξης τοῦ μεγάλου  
θεοῦ καὶ σωτῆρος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그 축복받은 희망을 심지어는 그 위대한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구세주이신

이에쭈쓰 흐리스토쓰가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디도서 2:13)

이 구절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구절 중의 하나  
이다. 하느님과 구세주가 같은 사람 이에쭈쓰 흐리스토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  
다. Granville Sharp rule이라는 그리스어 문법으로 비추어 볼 때에, 하느님과  
구세주가 동일인 이에쭈쓰 흐리스토쓰를 가리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Granville Sharp rule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1798년에 박애가이며 언어학자인 Sharp 선생이 아래와 같은 그리스어 문법을  
설정했습니다.

[정관사① + 명사② + καί③ + 명사④]로 만들어진 어구에서, 두 개의 명사들이  
단수이고, 보통명사이거나 (고유명사는 제외하고), 인칭에 관한 것이라면, 두  
개의 명사들은 언제나 같은 대상을 뜻한다.

예를 들면, "the① friend② and③ brother④,"에서도 ②와 ④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the① God② and③ Father④,"에서도 ②와 ④가 같은 대상을 가

리킨다.

또한, 그리스어에서 고유명사는 복수형으로 사용될 수 없는 규칙이 있다.

θεός와 σωτήρ "God" and "Savior"는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θεός와 σωτήρ는 고유명사가 아니고 보통명사에 속한다. 따라서 디도서 2:13

은 Granville Sharp rule에 의해서 풀어 볼 수 있다.

[τοῦ① μεγάλου θεοῦ② καὶ③ σωτήρος④] ἡμῶν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그① 위대한 하나님② 그리고③ 구세주④] 우리들의 이에썬스 흐리스토스,

에서 하나님②와 구세주④ 두 개의 단어들은 같은 대상인 이에썬스 흐리스토스를 가리킨다는 것이 Granville Sharp rule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구세주 이에썬스 흐리스토스는 하나님이라고 디도서 2:13이 기록하고 있다.

Granville Sharp rule은 200여년 동안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Granville Sharp rule을 적용할 수 없는 예문을 찾아내지 못했고,

Granville Sharp rule은 중요한 정관사 문법의 규칙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구절들이 Granville Sharp rule의 지배를 받는다.

이에썬스 흐리스토스에게 신성을 부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면 인간이다. 이에썬스 흐리스토스에게 신성을 부여할 때에 일어나는 것은, 천신 하늘의 몸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

니고, 인간이 신의 성품들을 취득하게 되면서 신성화 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영어로는 deification of humanity라고 표현합니다. 신의 성품들을 취득해서 신성화 될 때에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디도서 2:13이 “이에쑤쓰 흐리쓰토쓰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저자는 두 개의 명사를 사용하면서도 정관사를 어구 앞에다가 하나만 사용한 이 점 때문에, 두 개의 단어들이 같은 대상(이 구절에서는 이에쑤쓰 흐리쓰토쓰)을 뜻한다고 해석하게 된다.

[ $\tau\omicron\upsilon\tilde{\iota}$ ①  $\mu\epsilon\gamma\acute{\alpha}\lambda\omicron\upsilon$   $\theta\epsilon\omicron\tilde{\upsilon}$ ②  $\kappa\alpha\iota$ ③  $\sigma\omega\tau\eta\tilde{\rho}\omicron\varsigma$ ④]에는 정관사  $\tau\omicron\upsilon\tilde{\iota}$ ①가 한 개만 사용되었다. 한 개의 정관사가 두 개의 다른 명사들과 함께 사용된 어구에서는, 한 개의 정관사가 두 개의 명사들을 아주 가깝게 부쳐줄 뿐만아니라, God and the Savior처럼 두 개의 다른 대상들로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제어한다고 본다.

문법을 떠나서, God and Savior라는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실지로 로마 황제에게 붙여 사용된 표현이었다. 로마 사람들도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God and Savior라고 외쳤다면, 하물여, 기독교인들이 왕중에 왕이시며, 심판자들의 심판자이시고 치료의 신이신 그리스도에게 “구세주이며 하느님”이시다는 칭호를 올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 한다.

정관사가 하나만 사용된 어휘를 배드로후서 1:1에서 읽어 볼 수 있다.

$\acute{\epsilon}\nu$   $\delta\iota\kappa\alpha\iota\omicron\sigma\upsilon\tilde{\nu}\eta$  [ $\tau\omicron\upsilon\tilde{\iota}$ ①  $\theta\epsilon\omicron\tilde{\upsilon}$ ②  $\acute{\eta}\mu\tilde{\omega}\nu$   $\kappa\alpha\iota$ ③  $\sigma\omega\tau\eta\tilde{\rho}\omicron\varsigma$ ④]  $\text{'}\text{I}\eta\sigma\omicron\tilde{\upsilon}$   $\text{X}\rho\iota\sigma\tau\omicron\tilde{\upsilon}$ ,

우리 하나님과 구세주 이에쑤쓰 흐리쓰토쓰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배드로 후서 1:1)에서도 정관사 하나가 두 개의 명사들과 사용되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1:12절을 읽어보자.

*κατὰ τὴν χάριν τοῦ θεοῦ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by the grace of our God and the Lord Jesus Christ.  
(2 Thess. 1:12 NJB)

16 페이지, 밑에서부터 3번째 paragraph 부터 읽어 나가라.  
좋은 설교 나온다.

(2 Thess. 1:12 BGT)

